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63 색채와 생활

라미낙, 피아노를 '타악기·검은색'으로 표현

●색채와 숫자

서구에서는 활강 스키의 코스 난이도를 표준화하여 색으로 단계를 나타냈는데, 검은색은 가장 고난도 코스이다.

체스 게임을 비롯한 능력이 필요한 모든 종류의 게임에는 검은색과 하얀색을 사용한다.

●색채와 형태

오륜기는 1914년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에 의해 만들어져 1920년 제7회 벨기에 앤트워프 올림픽 때부터 계양되었으며, 5가지 색채로 표현되었다. 검은색은 아프리카이고, 5개의 원을 연결하는 방식은 세계(World)의 약자 더블유(W)를 의미한다.

러시아의 화가인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 1866년~1944년)는 그의 저서인 정신적인 조화의 예술(The Art of Spiritual Harmony, Houghton Mifflin Co., Boston, 1914.)에서 색을 운동으로써 파악하였다. 예를 들면, 선에 있어서 수평선은 검은색 또는 파란색을 의미한다. 각도에 있어서 180도는 검은색의 성격이 있다.

갈턴(Galton, Francis, 1822년~1911년)은 그의 저서(인간 능력의 탐구,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Macmillan & Co., Ltd., London, 1883.)에서 색채와 사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알파벳 O는 투명한 검은색이며, 깨끗한 얼음을 통해서 보는 물의 색이다. 자음의 M은 검은색을 느낀다. 숫자를 색채의 연상 방식으로 기술한 결과 1은 검은색이다.

●색채와 음계

베토벤은 음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 그는 나단조(短調)를 블랙 키(black key)라고 불렀다.

러시아 작곡가 알렉산드르 스크랴빈(Alexander Skryabin, 1872년~1915년)은 6가지 스케일을 언급하였는데, 그는 검은색을 마장조(E)라고 했다.

라비낙(Lavignac, Albert)에 의하면, 각 악기는 각각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악기의 특별한 성질이다. 그러나 눈과 귀의 형태 차이로 관찰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라비낙은 그의 저서인 음악과 음악가들(Music and Musicians, 1903.)에서 관현악의 편성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관현악의 편성법은 색채를 응용하는 화가와 매우 흡사하며, 음악가의 팔레트(palette)는 오케스트라의 리스트(list)이다. 음악가는 이것을 자기의 생각, 선율의 디자인, 화성의 조직

을 톤으로 표현한다.

음악가는 빛과 음영을 다루기 위해 화가가 색채를 배합하는 것처럼 톤을 혼합한다. 이러한 이론으로 볼 때, 군악이나 화려한 취주악은 다른 장식회화와 일치한다. 실내음악은 매우 부드럽고, 미묘한 색채 농담을 가진 수채화와 같다.

라비낙은 그의 저서인 음악과 음악가들에서 5가지 색을 악기와 연결시켰다. 각 악기는 자신의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 악기의 특별한 성질이다. 눈과 귀의 차이로 관찰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얀색과 회색 그리고 검정(white, gray, black)은 타악기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케틀드럼(kettle drum)과 같이 저음을 내는 북들은 저마다 다양한 소리로 커다란 어두운 구멍이를 만든다.

피아노는 타악기로서 검정빛으로 표현되며, 전음(顫音)은 피아니스트에게 중요하고, 이것은 페달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미술가의 기법과 같다. 피아노의 음악은 연필로 그린 소묘나 목탄 스케치 그리고 판화와 같이 검은색과 하얀색을 의미한다.



문화예술 기획자/철학박사·미학전공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

기고



김관호
광주 광산소방서장

올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나날이었다. 잦은 집중호우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날의 연속이었고 집중호우가 지나간 뒤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그렇게 집중호우와 폭염이라는 큰 고비가 지나가니 제법 무더

위가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갑진년 추석 명절이 5일간의 연휴로 다가왔다. 추석 명절 기간에는 주거시설에서 평소보다 10% 가량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한다는 통계를 보면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때이기도 하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럴 때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내어 신속한 대피를 돕는 안전장치이며,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다고 할 만큼 중요한

초기 대응 방법이기도 한데 항상 눈에 띄는 곳에 두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 광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언론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추석 연휴기간까지는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소중한 가족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미국 대선이 56일 남은 가운데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토론에 나섰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중이 한 장' 차이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토론은 미국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물가 문제로 시작해 임신 중단 정책 등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이민 문제를 두고도 맹렬한 비난이 이어졌는데,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근간이 위협받았다"며 "이민자들이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는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통제 강화 법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정했다고 반박했다.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발표가 진행됐다. 조사에선 김택우 회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후원업체와의 물품 계약 과정에서 '페이백' 방식으로 용품을 받았다. 협회 후원사의 전체 후원금 중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배분한다는 조항도 선수 몰래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은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하는 가구가 600만 가구를 넘어 서서 저지체들도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무료로 맡아주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원을 1인 가구로 확대했다. 위탁보호 기간은 1인 가구 기준 최대 5일이다. 마포구는 서울 최초 이동성 장려서비스인 '찾아가는 펫친사' 사업을 도입한다. 광주시는 펫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 입양 초기 의료비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내장칩 등록 지원을 마리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확대한다.



애플이 AI 기능 구동이 가능한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했다. 역대 가장 얇아진 애플워치부터 새 컬러로 돌아온 에어팟 맥스, 차세대 스마트폰까지 모두 발표했다. 아이폰16과 아이폰16프로, 프로 맥스 및 플러스는 모두 이전 프로세서보다 30% 빠른 성능을 제공하는 A18칩이 탑재된다. 외관상 특징은 카메라 촬영 시 활용 가능한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추가된 것. 한국은 아이폰 발매 사상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돼 미국과 동일한 일정으로 아이폰을 받아 볼 수 있다. 13일부터 사전 주문이 시작돼 20일 출시될 예정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